

Open-Ended

1호

[óupən-éndi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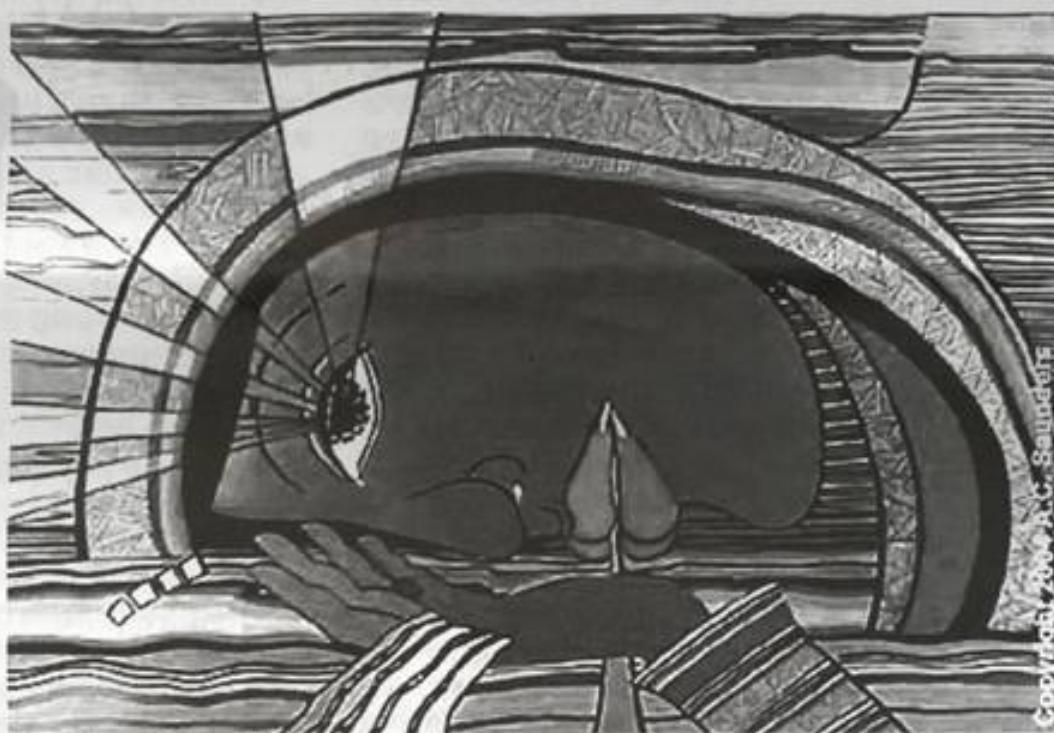
정해진 답이 없는, 자유롭게 생각대로 대답할 수 있는
관람 것 같은 공간에서 새로운 공간이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건축용어

행동하는 일상, 힘이되는 여성주의 [여기, 열다] 18대 총여학생회

<http://yonsei.ac.kr/~ysstem> empower@yonsei.ac.kr

특집 월경, 경계를 넘는 여성들

생리결석제, 여성의 더 넓은 선택과 권리를 위하여



Water of Hagar (by A.C.Saunders)

최근 몇 년간 생리로 인해 겪는 불편함과 그에 맞는 제도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 목소리는 정책의 도입과 맞물려 직장의 생리휴가, 대학의 생리결석제 / 생리휴강, 중고교의 생리공결제로 그 성과를 나타내었고, 덕분에 생리결석제는 우리에게 점점 낯설지 않은 단어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학의 생리결석제 제도는,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생리결석제에 대한 이야기는 이 내용을 약속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생리로 인한 일상적 불편함을 줄이는 것이 제도화된다는 것은, 여성의 생리에 대한 기존의 가부장적 사고를 뒤집어야 가능한 일이다.

식은 땀을 흘리면서 꼼짝 못 할 정도로 생리통이 심해도 남자 담임선생님에게 말하기 어려워 조퇴를 못했던 고등학교 때 친구, TV 광고나 드라마에서 '그 날'로만 표현되는 생리일, '깨끗함'을 강조하는 생리대 광고들, 동네 슈퍼에서 생리대를 사면 꼭꼭 검은 비닐봉지에 싸주는 아주머니 아저씨들... 생리를 웬지 부끄러운 것, 웬지 지저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아직도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남성들끼리 서로 '재 그 날이래'라고 놀리거나 기분이 좋지 않아 보이는 주변 여성에게 '그 날이나?'라고 묻기도 한다. 생리의 경험을 알지 못하는 남성들이 그 경험을 회화화시키고, '생리 = 이유없이 기분 나쁜'이라는 잘못된 공식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목소리들은, 여성의 몸을 순환하게 하는 자연스러운 경험인 생리를 부정적인 것으로 여기게 하면서 여성으로 하여금 그 불편함을 표현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바를 요구하기 어렵게 한다.

이제, 여성의 일상적 경험인 생리에 쫓겨난 가부장적 틀을 여성의 시각에서 바라보자. '생리는 임신을 준비했다가 실패하여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여성의 몸을 순환시키는 과정의 일부로 긍정해야 한다. 생리혈이 새어나오는 것은 음식을 먹다가 옷에 음식물이 묻듯이 생리 중에 오래 앉아있거나 누워 있다보면 생길 수 있는 일이다. 여성들이 행동의 제약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리 기간에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는 저렴한 생리대와 속옷이 개발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생리를 시작한 여성에게만 '이젠 아기를 낳을 수 있으니 몸을 조심해야 한다'는 충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십대들에게 안전한 섹스와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생리결석제는 여성이 생리 중에 겪는 불편함을 고려하는 방식 중 하나일 뿐이다. 생리통이 심한 날은 물론이고, 생리량이 많은 날에도 체육 수업 등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하는 수업은 가기 어려울 수 있다. 생리결석제는 정말 '생리통으로 꼼짝도 할 수 없어서' 수업에 갈 수 없는 여성들만 그 고통을 애써 증명하면서 공결을 인정받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생리가 여성의 일상에 미치는 불편함을 고려하여,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다양한 상황 (2시간의 수업을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생리량이 많다든지, 허리가 아파서 수업을 듣기 어렵다든지, 생리로 인한 소화장애로 계속 설사나 복통에 시달리는 등등)에 대해 공결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기초적인 제도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은 새로운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여자화장실에 파우더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생리대를 교환하기 위한 공간이 아닐까. 일회용생리대 전용 쓰레기통과 물티슈가 준비되어 있는 생리하는 여성을 위한 공간이 있다면 많은 여성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생리혈이 묻어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옷, 탐폰을 쓰지 않아도 생리 중에 수영할 수 있는 수영복, 생리 중에 먹으면 몸에 좋은 성분을 함유한 간식을 파는 카페는 어떨까.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현실로 만들어내기 위한 시작으로, 생리결석제에 대한 여성들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Contents

- 2 '예비엄마'로서가 아닌 여성으로서의 경험, 월경
내가 만들어 가는 월경의 즐거움
- 3 왜 교수 성폭력에 대해 말하는가
세계 여성의 날, 교수성폭력 근절을 외치다
- 4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광고] 여성폭력 문화제 기획단 모집
- 5 이성에 중심주의에 반대하는 이유
-신대 학생회의 자치규약 '이성에 중심주의' 조항 삭제와 관련하여
- 6 [후기] 새움터 기억하기
[후기] OT에 여성주의적 상상력의 날개를 달아준 '날개공작소'
- 7 [에세이] '여자친구들의 모임이 왜 필요한가요.'
[광고] 여성학자지도서란 '페미니리'
- 8 [서평] 가족이데올로기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도리스 레싱의 <다섯째 아이>
[에세이] 생난 파도 이겨내기

특집 월경, 경계를 넘는 여성들

'예비 엄마'로서가 아닌 여성으로서의 경험, 월경

여성의 월경이 사회적으로 이슈화된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여성들이 스스로 월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직장 내 생리휴가, 중고생 생리결석제 인정 등의 제도가 채택되었다. 하지만 제도로 도입되는 과정에서 과연 여성의 월경에 대해서 얼마나 '여성의' 이야기가 담겼는지는 의문이다.

현재의 제도권 안에서 채택되고 있는 한 달에 한번 휴가/결석은 실제 변동적인 여성의 생리주기와 생리통의 기간 등에 대한 내용을 담는 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성의 월경을 '한 달에 한번 걸리는 마법'으로 포장한 생리대 광고가 있지만, 실제 여성의 생리 주기는 3주에서 5주로 다양하다. 그리고 생리통은 하루 동안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배가 계속해서 아픈 것뿐 아니라 소화불량, 허리 통증 등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여성들의 월경에 대해 기본적 지식조차 가지

고 있지 않은 가부장적 사회는 여성만의 경험이 사회적으로 공론화 하는 것에 대해 커다란 반발감을 드러내며, 생리결석제를 모성보호/재생산의 보장으로만 받아들이려고 한다. "생리 휴강"으로 예비 엄마 지키자"라는 신문 기사의 제목은 이러한 가부장적 사회의 태도를 확연히 나타내주고 있다.

물론 여성의 월경은 임신 및 출산 깊은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재생산의 권리 또한 존중 받아야 한다. 하지만 계속되는 생리 결석제와 모성보호/재생산의 연관짓기는 심지어 생리결석제를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가 아닌 모성보호/재생산의 문제로서 논의를 하려는 주객전도된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생리결석제는 여성이 가부장적 사회에서 자신의 경험에 대해 말할 수 없는 억압적 상황에서 스스로 탈피해 자신의 언어로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시도이다. 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런 생리 결석제조차 여성의 권리를 위

해서가 아니라, 여성의 재생산 능력을 위해서 보호될 때야 비로소 사회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아직도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때는 가부장적 사회가 필요로 하는 자신의 재생산 도구로서의 위치를 다시금 상기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생리 결석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이 주체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월경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당신의 월경은 그것이 당신이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증거여서 보호되는 것도, 좋은 '어머니 되기'를 위해 지켜져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당신이 불편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생리 결석제는 당신의 권리가 되어야 한다.

by_ 상어 (canudie4me@hotmail.com)



내가 만들어 가는 월경의 즐거움

초경을 시작하던 13살 무렵 나에게, 생리는 축축한 답답함과 까슬까슬한 일회용 생리대의 느낌으로 인해 찝찝한 것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느낌이 순면감촉이라는 일회용 생리대가 출시되었고, 그 보드라운데 잠시 현혹되었지만, 오래 착용하고 있으면 그게 그거였다.

중학교 때쯤이던가, 호기심에 탐폰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견본품으로 탐폰을 받았다. 받긴 받았는데, 그때까진 한번도 내 성기를 거울로 본 적도 없었고(그럴 생각조차 못했고), 어디가 집인지도 모르겠고, 웬지 모를 막연한 두려움에 책상 서랍에 내버려 두었다. 언젠가 고민고민하다 용기를 내어 질 안에 집어넣어 보았으나 곧 빼버리고 말았다. 후에도 몇 번의 망설임과 시행착오 끝에 탐폰을 사용하게 된 것은 오년이 지나고서였다. 그리고 조심스레 사용해본 것이었건만, 탐폰 케이스에 작게 쓰인 TSS(Toxic Shock Syndrome 독성쇼크증후군)이라는 알 수 없는 병에 대한 경고에, 그리고 웬지 모를 불편함에 애용하진 않게 되었다.

정말 이렇게 불편한 것들을 (무려 매달 5천 원씩 쓰면서!) 계속 사용해야만 하는 것일까? 내 몸에 착용하는 것이고, 내가 환경을 할 때까지 몇 십 년을 써야하는 데 단지 생리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함을 감수 해야만 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에 휩싸여 있을 무렵, 어디에선가 '대안생리대'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무인도에서 구조선을 만난 듯, 막 쓰러져 있는 찰나에 화장실을 만난 듯, 반가운 마음에 인터넷을 뒤져봤다. 그러다 대안생리대를 만들고, 워크숍을 진행하고, 일회용 생리대의 해악을 알리고 있다는 피자매연대(http://bloodsisters.or.kr/)를 알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게시물들을 읽으며 내가 몰랐던, 그러나 너무나 알고 싶었던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일회용 생리대와 탐폰은 새하얇다. 피 색을 잘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건가? 라는 생각도 들지만 사실 알록달록한 생리대라도 확인은 가능하다. '마음까지 깨끗하게 해준다'는 새하얀 생리대는 여성의 생리를 더러운 것, 따라서 숨겨져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가부장적인 시선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게다가 새하얇기 위해 화학약품으로 표백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안 좋은 환경호르몬 물질(그 극악한 발암물질이라는 다이옥신도!)이 생기는 것이다. 생리대 회사에서는 미량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그 것들을 평생 거듭해서 사용하지 않는가. 일회용 생리대에 있는 레이온 섬유와 폴리에틸렌은 고질적인 염증, 가려움, 질염 등 피부 트러블을 일으킨다. 갈수록 자궁에 질병이 많아지는 것 역시 일회용 생리대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탐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독성쇼크증후군(TSS)은 탐폰이 생리혈 뿐만 아니라 질 내부에 질을 보호하는 물질까지 모두 흡수해버려, 포도상구균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병이다. 1980년에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36명의 여성이 사망했고, 그 이후부터 비공식적으로는 6만 명의 여성이 독성쇼크증후군에 걸렸다고 추정된다고 한다. 또 생리대를 만드는데 사용되는 펄프는 제 3세계의 숲을 파괴하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그리고 그 펄프로 만들어진 생리대는 썩는데 3~500년이 걸리며, 우리의 환경 역시 파괴하고 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안생리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피자매연대에서 만들고 있는 대안생리대는 내 손으로 직접 천으로 바느질해서 만드는 것이다. 기본적인 형태는 일회용 생리대와 비슷한 모양으로 용(면 소재의 부드러운 천)으로 겹감을 만들고 새지 않도록 안에 안감을 넣고 똑딱단추를 달아 사용하는 것이

다. 많은 여성들은 한 가지 정형화된 틀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소재, 방법, 형태를 가진 대안생리대를 시험해 보고 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각자 자신의 몸에 맞는 생리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한참, 그리고 며칠동안 피자매연대 홈페이지를 구경했다. 직접 만들어 써보고 싶은 욕망에 불타올랐지만, 혼자 만들기는 힘들 것 같아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다. 여자친구들과 모여 앉아 본을 따라 내 맘에 드는 알록달록한 천 위에 그림을 그리고, 자르고, 뽕뽕뽕 바느질을 하고, 똑딱단추를 달았다. 함께 모여 나의 월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내 손으로 만들어가고 내 몸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는 월경에 대한 상상을 꽃피우며 해방감을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다. 그리고 다음 생리가 오기만을 두근두근 기다리다 접싸게 착용해 봤다. "흡수가~ 오~!" 그 뽕뽕뽕한 착용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사용 후에 빨아야 한다는 사실이 조금 귀찮기는 했지만, 환경오염도 줄이고 내가 생리를 관리한다는 것에 기쁘게 사용할 수 있었다. 일회용 생리대가 발명되면서 여성들의 활동이 좀 더 편리해졌다는(쉽게 사고 버릴 수 있다는 점) 사실에는 살짝 고마움을 보내 본다. 그러나 그 편리함이 오히려 여성의 몸에 해가 되기에,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은 일회용 생리대의 구매와 사용은, 이제 거부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내게는 이렇게 보들보들한 월경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 내 몸의 경험을 긍정하고, 있는 그대로 느끼고, 내가 만들어 가는 월경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월경, 경계를 넘어서 여성들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by_ 아이세(joung330@hanmail.net)

왜 교수성폭력에 대해 말하는가

‘교수 성폭력.’ 어디선가 한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단어지만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느냐며 의심을 품는 사람들을 상당수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공론화되지 않는 것뿐이지, 교수 성폭력은 존재하고 있다.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는 그들의 말이 ‘객관적인 것’으로 수용될 수 있는 권위를 부여해주며, 학생들의 학점과 수업에 대한 통제권을 절대적으로 가질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교수와 학생의 권력관계 아래서 교수 성폭력에 대해 문제제기 하기는 어렵다. 설령 교수와 학생 간의 성폭력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다고 해도 강간이나 강제 추행, 성에 대한 심한 욕설 등이 아닌 이상 상당수의 사건은 흐지부지 끝나고 만다. 학내 성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기구인 성폭력대책위원회의 위원이 실질적으로 교수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교수에 대한 징계는 쉽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교수 성폭력으로 인해 학생들과 연구생들은 그들의 학습권과 생존권을 침해받는다. 이러한 교수 성폭력은 대학 내 가부장적 문화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우리는 교수 성폭력의 다양한 유형들 중에서, 가장 공적인 곳인 강의실에서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발생하는 언어 성폭력에 주목하려 한다. 2000년대부터 많은 대학의 여성운동단위들은 강의실 언어 성폭력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했다. 연세대학교 내에서도 공청회,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하여 강의실 언어성폭력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2005년 1학기, 17대 총여학생회에서 〈그녀들의 외란된 수업 만들기〉캠페인의 일환으로 싸이월드 커뮤니티 ‘여자들의 방’ 이명계시판, 총여학생회 이메일과 화상실 신문을 통해 수집한 사례들은 교수들의 언어 성폭력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준다. 어떤 교수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도 여자들 시집가면 슬모없지. 여자가 많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라며 여성의 미래를 결혼에만 한정짓고 공적영역에서의 여성의 능력을 평가절하 한다. 또 다른 교수는 “여자는 꽃이므로 합부로 꺾어서는 안 된다.”며 여성을 꽃으로 묘사하여 남성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수동적인 존재, 성적대상으로 규정한다. “젊을 때 그런 건 한번쯤은 봐줄 수 있죠.”라며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며 남성의 성욕을 참을 수 없는 것, 성폭력을 그들의 성욕 분출구로 여기는 남근 중심적 사고를 드러내기도 한다. 이성애 중심주의에 기반한 호모포비아적 발언으로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이성애자와 비(非) 이성애자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어 비이성애자를 더욱 소외시키는 경우도 있다. 성폭력/성차

별적인 발언은 이러한 발언에 불편함을 느끼는 이들에게 폭력으로 다가오지만 마땅히 그 불편함과 피해를 호소할 길이 없다. 교수에게 문제제기를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학점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역시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혹 항의를 한다 하더라도 주변의 지지를 받기 어렵고,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네가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 ‘농담을 가지고 뭐 그렇게 심각하게 구느냐’는 책임회피나, ‘수업시간에 도움이 되려고 한 이야기이다’라는 변명, 혹은 형식적인 사과가 대부분이다. 교수들의 성폭력/성차별적 발언은 강의실에서 가부장적인 생각을 재생산한다. 뿐만 아니라 강의실 언어 성폭력은 이에 불편함을 느낀 학생들을 강의실에서 배제시키며, 편안하게 수업을 들을 권리를 빼앗는다.

우리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나 아무런 거리낌이나 제재 없이 이루어지는 교수 성폭력에 문제를 제기하고 공론화 시키려 한다. 또한 교수 성폭력을 뿌리 뽑기 위한 적극적인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함께 고민해보려 한다. 교수 성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통해 여학생들의 수업권을 확보하고 성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나아가 교수 성폭력, 학내의 모든 성폭력이 근절되기 위해 끊임없이 적극적인 운동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그들의 발언이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그것을 단순히 ‘예민함’으로 간주하고 넘어가거나 혼자 고민하기 보다는, 이제 그 불편함을 소리 내어 말해보자. 싸이월드 커뮤니티 여자들의 방(femispac.cyworld.com)은 함께 이야기 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중 하나이다. 이곳에서, 때로는 그들을 향해 통쾌한 욕을 퍼붓고, 때로는 그들의 성폭력적인 발언과 행동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보며 서로 힘을 주고받자.

by_ 코알 (assasora15@hanmail.net)



교성절연에서 38 여성의 날을 맞아 제작한 엽서

세계 여성의 날, 교수성폭력 근절을 외치다

3월 8일 오후 4시경, 서강대 앞 정문에서 10여명 남짓한 여성들이 모였다. 누군가는 같은 그림이 그려진 티셔츠 꾸러미를, 누군가는 커다란 봉에 달린 현수막을, 누군가는 엽서를, 누군가는 피켓을 들고 있었다. 몇몇의 기자들이 왔고, 그녀들을 지켜보는 시민들이 있었다.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벌인 교수성폭력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이하 교성절연)의 시위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많은 인원도 아니었고 별다른 퍼포먼스가 있는 시위도 아니었지만, 신촌 거리를 걷는 내내 지칠 줄 모르고 구호를 외치는 그녀들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끌었다. 요구안을 담은 엽서와 피켓, 그리고 횡단보도 하나를 가



로지를 만큼 커다란 현수막으로 해가 질 무렵까지 교수성폭력 근절을 위한 요구안을 알렸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전달되었는지 아직도 아쉽기만 하다. 성폭력 사건이 언론보도에서 유난히 눈에 띄지만 정작 피해여성의 고통이나 가부장적 사회의 폭력성은 좀처럼 잊어낼 수 없는 사회, 성폭력을 가해자의 사회적 지위를 건드릴 수 없는 사소한 일로 인식하는 사회, 성폭력 피해자에게 찍힌 낙인을 거두기보다는 피해자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교수성폭력에 대한 이야기는 종종 왜곡된 시선 아래에서 전달되기 때문이다.

교수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노력들이 있어왔지만, 막상 더욱 노력하고 책임감을 느껴야 할 학교의 인식은 그다지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사건 처리에 관한 학칙과 기관이 학내에 버젓이 존재해도, 사건을 처리에 대한 의결권을 가진 교수들조차 피해자의 고통을 ‘스승과 제자’의 구도에서 가부장적 통념으로 재단하는 것이다. 피해자의 증언은 의심받고, 가해자 처벌에 대한 논의는 자꾸만 가해자의 상황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이탈해버린다. 가해자가 처벌을 받는다 해도, 완고한 교수사회가 피해자의 학업을 보장하지 않아 학습권 뿐 아니라 생존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따라서 교수성폭력 근절은 학내에서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 사건 해결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보장하는 제도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3.8 여성의 날 시위에서 주장한 교성절연의 요구안은 〈성폭력 가해교수 임용 반대〉, 〈反성폭력 학칙 내 교수성폭력 특별조항 신설〉, 〈교수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의 철저한 실시〉이다. 이는 성폭력가해교수가 징계를 피하고 사건을 무마시키기 위해 사직서를 낸 뒤 다른 곳에서 또 다른 성폭력을 저지르는 사태를 막고, 교수성폭력 사건 발생시에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처리 과정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교수성폭력을 예방하고 뿌리 뽑기 위한 것이다.

교수성폭력근절을 위한 여성주의자 연대는 고려대학교 여학생위원회, 관악여성주의자모임, 성균관대학교 총여학생회, 숭실대학교 총여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연세대학교 총여학생회, 이화여자대학교 여성위원회 총 6개 단위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의 날에 알려낸 요구안을 위해 계속 싸워나갈 예정이다. 함께 싸워나가고 싶은 사람들은 www.unninet.co.kr/tolive에서 참여할 수 있다.

by_ 들레(helen0415@hanmail.net)

성평등 자치규약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反성폭력 새터 내규가 2006년 1월 21일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성 평등 자치규약으로 개정되었다. 아직까지 학내에는 가부장적인 공동체 문화가 만연해 있으며, 성폭력사건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성 평등 자치규약은 이러한 폭력적인 문화에 대한 공동체의 일상적인 성찰과 실천을 위해, 자치규약의 적용 범위를 OT, 새터에서 학내 전반의 활동으로 확장하고, 새터이 '이성애중심주의', '나이/학번 권력'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성애중심주의의 폭력성

학내에서 "너 호모 아니야?", "나 요새 A(동성)가 좀 더러" 따위의 농담은 상대, 혹은 자신을 동성애자로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성소수자라는 위치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정상'으로 명명되는 이성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비하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적인 상황이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소수자에 대한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 보다 그 문제점이 더 공감받지 못한다.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호모포비아적 발언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아웃팅의 염려로 자신

의 불편함을 이야기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성 소수자에 대한 성폭력을 문제제기 한 사람에게 "너 호모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등의 2차 가해도 빈번히 일어난다. 이 때문에, 성 소수자에 대한 성폭력은 더욱 가시화되기 어렵다. 또한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감 표시를 개인의 취향쯤으로 여기는 것은 존중 받아야 할 인권으로서의 성 정체성을 무시하는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성 평등 자치 규약은 개인의 성 정체성에 대한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제기 하며, 개인의 성 정체성을 인권의 문제로서 논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먹은 밥 그릇 수의 권력

학내 공동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이것이 문제제기가 되더라도, 이를 성폭력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여태껏 '즐겁게' 해온 놀이를 중단하고 싶어하지 않는 선배/연장자들에 의해 문제제기가 묵살되는 일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선배/연장자가 성폭력의 가해자일 경우에는, 성폭력 사건을 '동생'으로 여기는 후배에 대한 '친밀감의 표현'으로 무마시키

고, 피해자의 문제제기는 개인의 '예민함' 쯤으로 묵살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나이/학번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는 권력으로 사용되고, 가부장적 학내에서는 성폭력 사건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에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 그래서 이번 성 평등 자치 규약에서는 성 평등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나이/학번 권력에 대한 비판 조항을 신설했다.

일상 속에서 계속될 성 평등 공동체 만들기

새터 뿐만 아니라, 학내에서 존재하는 많은 공동체의 활동들, MT, 연고전, 대동제, 개강 파티 등에서도 가부장적인 문화는 지속되어 왔으며, 성폭력 사건 또한 계속 발생해왔다. 이번 성 평등 자치규약은 가부장적인 학내 공동체의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위해 적용 기간이 확장되었다. 개정된 성 평등 자치규약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한번쯤 생각해보고, 이를 논의할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by_ 상어 (canadie4me@hotmail.com)

反성폭력문화제

기획단 모집

기획단 참가신청 empower@yonsei.ac.kr 02) 2123-3645

행동하는 일상, 힘이 되는 여성주의 <여기, 열대> 18대 총여학생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지기 시작한다.
누군가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려는 것이다...
나의 삶, 그 오랜 울림들...
나는 지금 너무도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
백찬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답배연기와 같은 말들을 내뱉고,
나아갈 수도 머물 수도 없다.
자, 다음엔 어떤 일이 펼쳐질까.

- 사무엘 베케트



by Katsunori Takahashi

이성애중심주의에 반대하는 이유

신대 학생회의 자치규약 '이성애 중심주의' 조항 삭제와 관련하여

'설명'의 주제와 '승인'의 주제

"당신은 어쩌다가 이성애자가 되었나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 아니, 대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성애자'라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고민해본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사실 앞서 던진 질문은 사회의 '다수'가 이성애자인, 혹은 그렇다고 믿게 되는 이성애 중심 사회에서 그리 친숙한 물음은 아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더욱 익숙한 질문은 "너는 어쩌다 이성애자가 되었니?"가 아니라 "넌 도대체, 어쩌다 동성애자가 되었니?"라는 물음이며, 여전히 "이성애는 과연 정상일까?"라는 질문은 "동성애는 진정 비정상적인 것인가?"라는 질문에 비해 낯설기 그지없다. 이성애만이 '정상'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전제 속에서, 비 이성애자들의 '다름'을 '인정'하느냐 마느냐 따위의 주제 넘은 논의의 칼자루는 언제나 이성애자들이 쥐고 있다. '다수가 곧 이성애자'라는 전제가 가지는 폭력성 속에서, 언제나 이들의 '승인'을 구하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내고 설명해야 하는 주체는 비이성애자들인 것이다.

누군가를 사랑할 권리와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긍정할 권리가, 다른 누군가에 의해 평가받고 재단되는 상황, 이로 인한 폭력까지도 용인 되는 상황은 불행히도 아직까지 전혀 낯설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 글에서 한국 사회의 이반들이 살아가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또다시 '설명'하며 '승인'을 구하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나는, 언제나 비이성애자가 받아야했던 질문을 도리어 이성애자들에게 되물고 싶다. '이성애'라는 명목하기 그지없는 전제는 왜 어떤 방식의 설명도 없이 당연하다고 여겨져 왔는지, 그러면서 '자연의 이치' '신의 섭리'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온 '이성애 중심주의'라는 전제가, 어떤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동성애는 장애라는 이야기부터 풀라나 사이다를 선택하는 것처럼 사소한 취향의 문제라는 기만적인 설명까지, 이성애자들이 동성애를 일컫는 스펙트럼은 다양하지만 정작 그렇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이성애에 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동성애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과정은 끝없는 자기 부정과 검열을 수반한다. '이성애적이지 못한' 자신을 알아가며, 자아의 일부라 할 수 있는 자신의 성적정체성을 부정해야 하는 괴로움, 그 와중에 학습되지 않은 정체성을 만들어가야 하는 부담감, 그리고 그것이 공개되어 모욕과 폭력을 감당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이 속에서 동성애자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하지만, 이러한 검열의 과정은 이성애자의 각본 속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아웃팅으로 인한 10대 이반의 자살이 언론에서 '성적 비관'으로 포장되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이성애자는 그나마의 '공정'의 과정보도 없이, 이성애 각본 속으로 무의식적으로 굴복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신과 대학 자치규약의 '이성애 중심주의' 조항 삭제 논란

지난 1월, 확대운영위원회에 제출된 총학생회의 '성 평등 자치규약' 개정안에 대해, 신과대학 학생회가 이성애 중심주의에 관련한 2조 2항을 삭제하는 것을 요구하는 수정 동의안을 제출, 장시간의 논쟁 끝에 통과되

었다. 당시 '종교상의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며 수정동의안을 내었던 신과대 학생회는 '신과대 성 평등 자치규약'이라는 이름으로 이성애 중심주의 관련 조항만을 빼내 OT와 새터를 진행하였다. 이번 신과대의 자치규약 일부 조항 삭제가 2000년, 학내의 모든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구성원 모두의 '약속'이라는 의의로 제정된 자치규약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과 의의를 퇴색시키는 문제라는 것은 일단 제쳐두자. 무엇보다 이번 이성애 중심주의 논란에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성적 지향을 이야기할 때 '설명을 요구받는' 주제와 '승인하는' 주제는 언제나 엇갈린다는 것이다.

연세 춘추 3월 2일자 인터뷰에 따르면 신과대학 학생회장 최종우씨는 "연세신학에는 다양한 사상을 지닌 학생들이 공존하고 있다"며 "학생회가 2조 2항을 내거는 것은 암묵적으로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하며 삭제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신대만의 특수성', '침해할 수 없는 종교적 양심'이라고 설명하기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다. '다양한 사상을 가진 학생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말하면서, 왜 다양한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는 것인가?

개개인의 성적정체성을 존중해야한다는 명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인권'의 개념이며, 신대 회장의 언급대로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의 '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와 다른 누군가의 '종교적 신념을 지키는 권리'는 상충되는 개념이 아닌 것이다. 이성애 중심주의를 반대하는 것은 '이성애'라는 하나의 성적 취향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애만을 옳다고 바라보는 편견 속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반대하는 것이다. 성적정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받는 모욕과 비하, 폭력을 '성폭력'이라 명명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인 것이다.

이번 이성애중심주의 논란은 성폭력의 문제를 '진보와 보수', 혹은 '다양한 사상의 문제'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는 가부장적인 시선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성폭력 문제를 말하는 수많은 논의들 속에 스며든 '승인 주제'의 권력이 아직도 얼마나 견고한지, 그 속에 정작 피해 당사자의 목소리는 얼마나 가려져 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이성애 중심주의에 반대하는 이유

이성애 각본은 단순히 생물학적 성별의 차이에 의한 결합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남에게 고정되어 있는 성역할, 그리고 이를 통한 남성 우위의 권력관계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애중심주의가 가부장적인 질서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가부장적 질서에 기반한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여성을 재생산의 도구로 바라보며 여성에게 가사노동을 무임으로 전가하는 등, 이윤을 획득하는 방식으로 이성애 중심적인 가족 이데올로기를 유포한다. 법원에서 동성애 결혼을 '허용'하지 말지 심사하는 논의들, 성전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반대하는 일련의 논의들은 이러한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 속에서 '차이'와 '인권'의 개념을 삭제한다. 생물학적인 성과 사회적 성을 일치시키며 출산을 전제로 하는 성적 결합만을 강조하려는 시도는 이러한 가부장적인 통념 속에서 여전히 견고한 것이

다. 아직도 결혼을 통해 가족제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그를 통해 사회적 재생산과 무임의 여성 노동력을 한꺼번에 획득하는 등의 이성애중심적인 목소리들 속에서 동성애 인권 문제는 언제나 가부장제의 논리 속에 지워진다. 여성인 내가 여성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승인'을 요구하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해야 하는 현실, 여성을 재생산의 도구로만 바라보며 저출산이 국가적인 위기라고 운운하는 가부장제의 목소리들 속에서, 이성애 중심주의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것에 반대하는 여성주의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차이'를 존중하라고 말하기 보다는, '차이'를 규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먼저 성찰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나와 너의 차이가 '틀림'이 아니라 '다름'임을 인식하는 사고는 점점 확장되고 있지만, 남성의 경험만으로 여성의 차이를 인지하고, 이성애자만의 경험으로 동성애자의 차이를 바라보는 '기준'은 아직도 존재한다. 어쩔지 않은 '이해'와 '배려'로 차별의 기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정말 필요한 것은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누구를 기준으로 구성되어있는지 그 전제를 뒤엎는 작업인 것이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바라보며 '내가 그들과 다르구나'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와 다를 뿐'이라고 인지하는 것, 비이성애자가 이성애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성애자를 기준으로 구성되지 않는 것, 지금은 이러한 가정이 낯선 일이다. 그러나 무엇을 주제로 위치시키는가의 문제, 어떤 시선을 기준으로 말할 것인가의 문제가 해체 되었을 때, 그때는 이성애 '중심주의'라는 모순된 언어 역시 퇴색되지 않을까.

by_ 아무도(mssun85@naver.com)

연세대학교 성 평등 자치규약 2조 2항 이성애중심주의

이성애 중심주의란 모든 사람은 이성애자이며 반드시 이성애자이어야 한다는 집단적 오직 이성애만을 정상적인 것, 올바른 것이라 여기는 가부장적 통념이다. 이성애 중심적 폭력은 이성애 외의 경험이 있는 개인과 공동체를 비난하고 주변화 시킴으로써 성적 다양성을 억압한다. 또한 이성애 중심주의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에 따라 특정 성 역할을 강요하면서 남성 우위의 성별 권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러나 누구도 단일한 성 정체성을 강요할 수 없으며 특정 성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성 역할은 존재하지 않는다. 잠재성과 성적 지향은 매우 다양하며 비이성애자를 비롯하여 전형적인 여성과 남성의 틀에 갇히지 않고 주제적으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개개인 모두가 이러한 성적 다양성 속에 있다. 우리는 당연시되어 왔던 이성애 중심적 통념을 낫게 보는 연세과 기존의 이성애 중심적 언행들에 대한 성찰을 통해 보다 성평등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동성애 혐오증에 기반하여 욕설 및 조롱이 담긴 발언을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상대방의 성 정체성에 대한 고려 없이 이성애 중심적 커를 문화를 강요하지 않는다.
- 비이성애자의 성적 지향을 무시하거나 부당한 것으로 치부하지 않는다.

성평등 자치규약

대학 내 공동체를 위한 성평등 자치규약

반성폭력 새터 내규가 2006년 1월 21일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성 평등 자치규약으로 개정되었다. 아직까지 학내에는 가부장적인 공동체 문화가 만연해 있으며, 성폭력사건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성 평등 자치규약은 이러한 폭력적인 문화에 대한 공동체의 일상적인 성찰과 실천을 위해, 자치규약의 적용 범위를 OT, 새터에서 학내 전반의 활동으로 확장하고, 새로이 '이성애중심주의', '나이/학년 권력'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성애중심주의의 폭력성

학내에서 "너 호모 아니야?", "나 요새 A(동성)가 좋더라" 따위의 농담은 상대, 혹은 자신을 동성애자로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한다. 성소수자라는 위치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정상'으로 명명되는 이성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비하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적인 상황이 만연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 소수자에 대한 성폭력은 여성에 대한 성폭력 보다 그 문제점이 더 공감받을 수 없다.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나 호모포비아적 발언이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가부장적 사회에서, 성소수자는 아웃팅의 염려로 자신

의 불편함을 이야기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성 소수자에 대한 성폭력을 문제제기 한 사람에게 "너 호모 아니야?" 라고 말하는 등의 2차 가해도 빈번히 일어난다. 이 때문에, 성 소수자에 대한 성폭력은 더욱 가시화되기 어렵다. 또한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감 표시를 개인의 취향쯤으로 여기는 것은 존중 받아야 할 인권으로서의 성 정체성을 무시하는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성 평등 자치 규약은 개인의 성 정체성에 대한 성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문제제기 하며, 개인의 성 정체성을 인권의 문제로서 논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먹은 밥 그릇 수의 권력

학내 공동체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이것이 문제제기가 되더라도, 이를 성폭력으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여태껏 '즐겁게' 해온 놀이를 중단하고 싶어하지 않는 선배/연장자들에 의해 문제제기가 묵살되는 일이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게다가 선배/연장자가 성폭력의 가해자일 경우에는, 성폭력 사건을 '동생'으로 여기는 후배에 대한 '친밀감의 표현'으로 무마시키

고, 피해자의 문제제기는 개인의 '예민함' 줌으로 묵살해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나이/학번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정당화하는 권력으로 사용되고, 가부장적 학내에서는 성폭력 사건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대한 2차 가해 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기제가 된다. 그래서 이번 성 평등 자치 규약에서는 성 평등 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걸림돌이 되는 나이/학번 권력에 대한 비판 조항을 신설했다.

일상 속에서 계속될 성 평등 공동체 만들기

새터 뿐만 아니라, 학내에서 존재하는 많은 공동체의 활동들, MT, 연고전, 대동제, 개강 파티 등에서도 가부장적인 문화는 지속되어 왔으며, 성폭력 사건 또한 계속 발생해왔다. 이번 성 평등 자치규약은 가부장적인 학내 공동체의 문화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위해 적용 기간이 확장되었다. 개정된 성 평등 자치규약이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한번쯤 생각해보고, 이를 논의할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by_ 상어 (canudie4me@hotmail.com)

반성폭력문화제

기획단 모집

기획단 참가신청 empower@yonsei.ac.kr 02) 2123-3645

행동하는 일상, 힘이 되는 여성주의 <여기, 열다> 18대 총여학생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지기 시작한다.
누군가 자신이 겪은 일을 말하려는 것이다...
나의 삶, 그 오랜 울림들...
나는 지금 너무도 소중한 일을 하고 있다.
벽찬 숲을 들어쉬고 내쉬고 담배연기와 같은 말들을 내뿜고,
나아갈 수도 머물 수도 없다.
자, 다음엔 어떤 일이 펼쳐질까.

- 사무엘 베케트

성폭력을 나의 이야기로 말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 또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이 성폭력에 대해 말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금기시 되어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겪은 성폭력의 경험은 분명 나의 몸과 마음에 일어난 일이고, 그 일을 치유하기 위해, 그리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는 지지받고, 다시 이야기하고, 서로에게 힘을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의 경험, 나의 경험으로 성폭력을 이야기하는 반성폭력 문화제를 함께 꾸려나가고 싶은 용기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by Katsunori Takahashi

새움터 현장활동 후기

새움터 기억하기

사실 새움터 현장 활동은, 처음 내가 새움터에 가기로 마음먹었을 때 생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다.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기대했던 나는, 탈성매체 여성인 언니들이 일하는 작업장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나 청소와 같은 일상적인 일들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특히 내가 남자였던 탓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한정되어 있기도 했다. 할 일이 없을 때는 언니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며 멍하니 앉아있기도 했다. 그리고 언니들과 어떤 얘기를 해야 할까 고민하며 계속 하릴 없이 시간을 보냈던 것 같다.

하지만 그러함 어찌 보면 지루하기도 했던 과정이, 오히려 활동이란 어떤 것일까 고민하게 만들었다. 짧게는 상사일, 길게는 열흘 남짓한 기간동안 힘이 부치도록 뛰어나고 오는 것만이 활동, 현장 활동인 것일까? 그런 힘든 일정이 끝나고 나서는 그저 서서히 일상 속으로 돌아오기만 하지 않았었는가, 라는.

이러한 고민이 시작되었던 것은, 새움터에서 행했던 일상적인 일들이, 어쩌면 거창한 의미를 뛰어넘어 우리가 가장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내가 지금까지 실천과 여성주의에 대해 고민하고 얘기해 왔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많이 정체되어 있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현장 활동 때 잠깐 정신없이 일하고 난 뒤, 막상 일상으로 돌아와서는 내가 지속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다. 요리나 청소와 같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적인 영역들을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해오지도 배우지도 않았었다.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는 그러한 과정들에 대해 그저 미루어두었던 것 같다. 여성주의를 접하고 스스로에 대해 돌아보게 된 이후에도, 언제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배우면 된다고, 천천히 바꿔나 가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나 새움터에서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그렇게 미루는 사이에 벌써 대학에 들어온 지 이년이 지났다는 것,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는 앞으로는 전혀 나아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어렵다는 생각이 종종 들었다. 우선 이제껏 형성된 나에 대해, 내가 해왔던 선택들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바꿔나가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와는 전혀 다른 삶의 궤적을 지니고, 나보다 훨씬 셋째대인 언니들과 얘기를 나누고 공감을 찾는 일 또한 힘들었던 탓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관계맺음에 대한 노력을 그만두어선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그러한 노력을 그만둘 때 난 더 이상 나와 반과 동아리라는 공간을 넘어선 곳에 존재하는 일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 나의 바람과 시각과 열정이 온전히 '나'에게로만 쏟아지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이 사실이다. 나는 오래전부터 여성주의에 관심을 가졌음에도, 기저촌의 성매매, 탈성매체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지금 어떠한 조건에 처해졌는지 알지 못했다. 그리고 나와는 다른 조건과 공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나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언니들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거리감을 느꼈다. 그러나 이번 새움을 겪으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가장 많이 깨져 나갔던 것 같다. 탈성매체한 이후의 언니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을 느끼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걸 좋아하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관심을 가지고 우리들과 수다를 나누는 언니들을 보며, 바로 내가 사는 그 지척에 언니들이 살고 있고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체감하며.

사실 새움터에 다녀온 지금도 앞으로 언니들과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는 생각을 한다. 여전히 난 그분들과 얘기하는 게 어렵다. 그리고 그분들의 상황과 삶에 대한 나의 이해가 여전히 파편적이라는 것을, 그것을 넘어서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그러한 파편 조각조각을 모으는 작업들이, 지금까지 나를 조금씩 변화시켰던 것 같다. 예전과는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생각을 하게 하고, 나만이 아닌 우리가 함께 소통하고 살아가는 꿈을 꾸도록. 그렇기에 당연한 말이지만, 새움터에 가서 몰랐던 것들을 배워나가는 일만큼 앞으로 나의 일상 속에서 새롭게 알게 된 현실과 어떻게 끊임없이 소통해나갈지를 고민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란 생각이 든다. 더 이상 미루지 않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by_ 강예

여성주의 새내기 OT 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을 때, 나는 여성주의와 OT의 조합을 쉽게 상상할 수 없었다. 적어도 내가 생각하는 여성주의와 OT는 서로 너무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었기 때문이다. 여성주의는 흔히 관례라는 이름 하에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던 불편함에도 귀를 기울이고 문제제기를 하지만, 우리가 해오던 OT는 그러한 문제제기는 곧 싸한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OT의 분위기에 불편함을 느낀다 해도 마치 전혀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서로 애써야 즐거울 수 있는 게 아니던가. 실제로 OT하면 떠오르는 FM과 술, 응원에는 누군가에게는 즐겁지만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불편한 행위들이었고, 그럼에도 자신의 불편함을 쉽게 입 밖으로 꺼낼 수 없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OT에서 FM을 하거나 술을 억지로 마시라고 대놓고(!) 강요하지는 않는데도 말이다. 나 역시 새내기 때 FM이 뭘지도 잘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분위기 깨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FM을 했었다. 물론 그런 나의 애써와 상관없이 안타깝게도 나가리가 되긴 했지만.

어쩌면 OT와 새터에서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던 나의 기억 때문에 여성주의 OT에 더욱 끌렸던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를 자유롭게 하는 여성주의가 OT와 만난다면, OT도 조금은 더 자유롭고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런 생각과 기대를 가지고 여성주의 새내기 OT 기획단에 참가 신청을 하게 됐고, 새내기 시절 이후로는 나와 별 상관없이 없어진 OT에 대해 새롭게 고민하게 되었다. 사실 OT에 대해 불만은 많았지만 막상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는 막막하기만 했던 나에 비해 기획단을 같이 하는 여성주의자 친구들은 어쩌나 상상력이 풍부하던지, 타로카드방, 춤테라피, 미술테라피, 농구, 여성주의 호신, 대안 생리대 만들기 등 OT에서 할 소그를 활동들이 척척 준비되는 걸 보면서 신기할 때가 많았다. 여성주의적인 상상력이 기존의 제도와 문화들을 얼마나 새롭게 발랄하게 전복시킬 수 있는지 체험하는 시간이었다고나 할까. 기획단 세 미나를 통해서 일상에서 가지게 되는 여성주의적 고민과 문제의식을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 받고 격려하는 시간들도 소중했다. 여성주의를 알게 되면서 새롭게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삶이 좀더 복잡하고 고달파지긴 했어도, 그 고달픔마저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게 여성주의자들의 삶이 아닐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직 여성주의자라고 하기엔 한참 부족한 게 많은 나지만, 적어도 여성주의자로 산다는 것, 그리고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지는 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여성주의 새내기 OT 후기

OT에 여성주의적 상상력의 날개를 달아준 '날개공작소'

막상 OT 날짜가 다가오면서는 막바지 준비로 정신없는 가운데 예상보다 참가 신청자가 적어 기획단 모두 걱정을 많이 했었다. 각 단대별 OT를 돌며 홍보하기도 하고 주변 지인들을 포섭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참가자는 그리 많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여성주의나 여성주의 행위에 무관심한 학우들이 많은 만큼 이들의 관심을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나 참가자 수가 많지 않았음에도 OT 프로그램은 참여한 사람들의 많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소속단대와 학번, 이름을 단지 기계적으로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신의 내면과 경험을 이야기하는 소그를 활동은 서로 처음 대면하는 얼굴들임에도 참가자들이 보다 편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소그를 활동 전 있었던 강연과 활동 후의 공연도 오붓한 분위기 속에서 잘 진행되었다. 개인적으로는 MBTI 소모임을 준비하면서 담당 선생님과 대화를 했지만 여성주의 OT의 기본 취지에 대한 전달이 부족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을 조절하지 못했던 것이 많이 아쉽다.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보완했다면 참가자들이 여성주의를 보다 가깝게 느낄 수 있게 하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아쉽고, 함께 소모임을 한 참가자들에게 미안함으로 남는다. 그럼에도 참가자들이 각자가 느낀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들은 유익했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깨닫게 해줬다. OT를 준비하면서나 진행하면서나 나는 이래저래 배운 것이 많은 셈이다.

예초의 다짐만큼 열심히 하지는 못했기에 행사를 준비하느라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은 기획단 사람들에게는 정말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다. 하지만 미안한 마음 한편으로는 고민을 새로운 상상력으로 바꿔내는 기획단 사람들에게 많은 걸 배웠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즐겁고 뿌듯했다. 가부장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체제를 전복시키고 억압과 소외를 극복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게 하는 여성주의, 여성주의자들의 연대는 이러한 여성주의의 힘을 극대화시킨다는 것을 이번 기획단 활동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다. 늘 그래왔기에 바꿀 수 없고, 바뀌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던 세상도 함께 하는 힘이 더해지면 차근차근 바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여성주의 새내기 OT는 이런 희망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조금 부족한 시작이지만 언젠가는 여성주의가 앞에 불지 않아도 모든 새내기 OT가 여성주의적으로 바뀌기를 꿈꿔본다.

by_ 달리(enprit4807@naver.com)

“여자친구들의 모임이 왜 필요한가요”

두리 뭉실한 질문을 마주 했을 때 판소리 하지 않고 가장 효과적이고도 솔직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질문의 정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 경험에게 물어 보는 것이다. 그 전에 잠깐, 한 가지 확인하자. 이 질문을 하는/받는 내 위치는 어디인가, 질문하는 위치에 따라 위의 질문 뒤에는

- ① 반에서 여자친구들의 소모임을 만들고 싶은데, 어째야 할지 모르겠어요.
- ② 그냥 다같이 어울리면 되지 뭘 굳이 구분 하나요.
- ③ 왜 남자들은 배제하는 거죠.

등등의 말들이 따라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질문 뒤에 숨겨진 내 위치를 확인하면 질문의 의도가 드러나고 질문하기 이전에 질문자 자신이 더 곰삭여야 할 성찰지점들을 파악할 수 있다. 아마도(경험적으로) ①의 심정은 답답함 ②는 무심함 ③은 못마땅함인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길게 운을 때는 걸 읽은 당신은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내 위치는 뭘테, 이 글을 쓰는 나 자신이 위의 질문 뒤에 덧붙이게 되는 말은 '나에게 밥이 되고 힘이 됐던 그 모임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두근두근)이다. 그래서 이 글은 ①의 답답함을 공유하고, ②의 무심함에 말을 걸기 위해 쓸 작정이다. (나를 '못마땅' 하게 여기는, 예를 들어 부모님과 대화는 불가능하거나 언제나 평행선을 달릴 뿐이죠, ③-못마땅함은 최소한 소통가능한 자세로 자신을 회복하시길 바라며~)

여자친구들이 왠지 즐거워 세상에서 처음 내가 밥을 내밀었던 이유는, 그 때의 내게 쓸 곳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펑크 밴드의 스피커를 외치며 공연하고 술 마시고 칭송해마지 않는 젊음의 격기로 새터 장소로 빌린 건물의 온 복도에 소화가 불분사해 대는 밴드가 재수 없는 이유, 반에서 목소리가 큰 여자아이일수록 중성적인 존재로 취급 받게 되는 것(이성에 연애 상대자로서 자격미달을 선고하는 남성기준)이 짜증나는 이유, "오, 오늘 차마입고 왔네~ 완전 봄아삼~" 따위의 말이 누구에게는 인사이거나 칭찬이지만 듣는 내게는 깔려있음이나 부자연스러운 들뜸(이성애적 긴장과 관습 속에서 나를 확인받게 되는 분위기)으로 느껴지는 이유를 공감 받을 수 있는 쉼터.

이런 심정들을 굳이 이해까지는 못 받아도, 나는 불편하니 그러지 말라, 라고 상식적인 합의를 하면 되지 거창하게 쉼터까지 필요할 게 뭐 있냐고 물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도의 합의도 말이 쉽지 해보면 엄청 진 빠지는 일이라는 데 있다. 혹은 말하기 자체가 굳이 일을 만드는 것으로 느껴져서 그냥 넘겨버리기가 쉽기도 하다. 지배적인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 관계가 정색되면서 심각한 공기만 조성될 뿐, 정작 얘기되어야 할 부분은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미끄러지기 마련인데, 그 부담을 굳이 감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내게는 이런 심정들을 긴장감 없이 편안하게 이해 받을 공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물론 '여자들은 모두 영혼의 쌍둥이'가 아니기 때문에, 나의 그 어떤 부분이라도 무조건 공감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기대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관계는 누구와의 관계에서라도 불가능하거나 혹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만 약간 비슷하게 얻어질 수 있다.) 하지만 여성, 그 중에서도 2006년 한국의 연세대 어떤 반, 어떤 동아리 속의 여성이라는 위치에서 겪게 되는 비슷한 경험과 감정의 결을 공유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공유 지점들 속의 자기 경험과 감정이 누군가가 듣기 좋은/들리는 말로 분절되지 않더라도 공감을 얻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여자들이 공감하는 성별화된 현실은 하나씩 확인해 갈수록 예상보다 더 많이 발견된다. 물론 개개인 여성의 경험은 다르겠지만 최소한의 편안함(이성애적 긴장이나 관습 속의 감각이 아니라, 편안한 나 자신으로 대화하는 기분 말이다.) 의사소통 공간에서 그 다름을 이야기하며 역사적,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도 있다.

공감은 지지받는다느 느낌으로 이어져 내 자존감의 밥이 되어 주고, 그 톨툴함을 다른 힘으로 발산할 수 있게 한다. 다른 힘, 여성들의 모임이 내게 소중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사실 여기에 있다. 구구절절 설명을 늘어놓기보다 얼마 전에 있었던 여자 친구들의 모임에 대한 기억을 소개하면서 이 '다른 힘'을 조금이나마 설명해 보려한다. 예전에 활동했던 동아리의 여자친구들이 카페에 모였다. 여전히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다.

'동아리 게시판에, *세포 소녀라고, 남자들의 자위를 소재로 웃긴 상황을 연출한 만화를 누가 올렸는데, 밑에 킬킬대는 남자들이 답글이 장난이 아니야, 내 보기에는 거슬러대 말이지,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되는데 정색해서 대꾸하기도 그렇고 어쩌냐'

만화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여자친구들의 첫 반응은 '짜증나~', '허(코웃음)' 재밌으면 혼자 보고 웃지 그런 걸 왜 동아리 게시판에 올려? 등등. 끝이 이 짜증나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내가 좀 덜 피곤하면서도 상황을 진압할 수 있을 지로 화제가 옮겨가고, 왜 대부분의 남성들이 재미있어하고 어떤 남성들은 재미없거나 불편해하는 농담이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재미없거나 불편한지를 먼저 생각해보기로 했다. 대학을 다니는 동안 비슷한 일을 98번쯤 겪느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한 사람이 만약 소재가 여자에의 자위였다면 동아리 게시판에서 농담이 될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여성의 성기는 언제나 너무나 "섹시해서" 포르노그라피거나 폭력의 대상이 되기 십상인데, 남성들은 옛날꽃날 고추 내 놓고 찍은 물 사진부터 시작해 술 마시며(혹은 술 안 마셔도) 자연스러운 노상방뇨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성기를 드러내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거나 말거나 아무렇지도 않고 심지어 몇몇은 성별화된 섹슈얼리티의 문제인 것 같다고 조언을 하고, 어떤 이는 이런 이야기 설명해 봤

자 입만 아프거나, 혹은 그 짜증나는 게시물을 진지하게 상대하고픈 마음이 없으니 우리도 농담으로 대처해보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또 어떤 이는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근처 담벼락에서 '여기다 오줌 싸면 짜른다'라는 휘갈겨 써진 경고 문구를 보고 속 시원했던 경험을 이야기 하면서 그 담벼락 사진 찍어다가 이거 정말 웃긴다! 라며 같은 게시판에 나란히 올리자는 제안을 하고, 왠지 낯, 분위기 반전, 그 화제는 신나게 마무리가 되었다.

내가 말하고 싶은 다른 힘이란 이런 것이다. 공감 받았다는 데에 단지 머무르지 않는, 나아가는 힘. 각자의 경험을 자원화하고, 서로의 자원이 되어 줄 때 발휘되는 힘. 아마 이런 여성들의 모임에서 여성학도 시작했을 것이고, 여자들의 밴드도 시작했을 것이다. 예초부터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모임을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아마 대부분의 경우 모여서 각자의 경험과 하고 싶은 것들을 나누다가 어느 순간 직당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여행을 좋아하는 여성들이 여자 혼자 여행하기가 대한 사회의 과도한 관심이나 규범, 여행지에서 여성여행자가 겪는 고충을 나누다가 여행 소모임을 만들고 여성+여행이라는 주제로 자신의 여행을 프로젝트화하고, 지식 노동을 하던 사람은 논문도 쓰고, 심포지엄('여성성과 여행, 관광작품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2005.10.21 또 하나의 문화주최)도 열게 된 것이다. 그렇게 열린 심포지엄에서는 여성이 여행을 말하는 것의 의미를 만들어 내고,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정체성 자체가 여행의 불편함이 되는 위치를 공유하는 장애인 여행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된다. 이런 시각을 좀 더 넓혀 가면 각자의 장애에 따라 다른 여행의 어려움, 여성들 중에서도 비혼 여성과 주부의 다른 경험, 주부 중에도 아이가 있는 경우의 다른 경험을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힘이란, 바로 이것. 나의 경험에서 출발해서 아무도 여행이 운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때 여행을 운동으로 다시 쓰고 새로운 여행을 만들어 가는 것. 여성이라는 공통분모에서 시작하지만, 다양한 다름에 대한 이야기로 퍼져나가는 것. 그 시작은 바로 여성들의 모임이다. 그리고, 뭘 굳이 이렇게까지 거창할 것 없어도 여자친구들끼리 모이는 게 즐거울 수 있다면 그 것만으로도 좋으니까.

by_ 먼지(dustsong@naver.com)

만우회 성폭력 상담소에서 이제 막 일하게 됐어요. 언니네트워크 액션나우팀에서 활동하고 있기도 하구요. 이 글은 만우회나 언니네트워크의 활동가의 입장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나를 산전수전 겪은 먼지 개인의 글이지만, 제가 가진 자원을 나누려는 마음에서 홈페이지 주소를 붙였습니다.

한국여성민우회 www.womenlink.or.kr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 상담소 fc.womenlink.or.kr
언니네 www.unninet.co.kr
언니네트워크 www.unninetnetwork.net

여성학 자치 도서관 페미니리

여성학자치도서관 페미니리가 신간도서와 깨끗하게 정리된 여성주의 행사 자료집으로 새롭게 꾸며졌습니다. 여성학에 관심이 있는데 어떤 책을 봐야할지 고민하는 분들, 좀 더 아늑한 공간에서 여성학 책을 만나고 싶은 분들은 **학생회관 3층 총여학생회실 안에 있는 페미니리**로 오세요. 읽고 싶은 여성학 책이 구비되어있지 않을 경우 도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평

가족이데올로기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 도리스 레싱의 『다섯째 아이』



내가 도리스 레싱(Doris Lessing)을 처음 알게 된 것은 그녀의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이자 페미니즘 문학의 수작으로 꼽히는 <황금빛 노트북>을 통해서였다. 소설과 별로 친하지 않았던 나에게 대개 소설은 페미니즘 문학의 계보를 따라가는 방식으로 손에 잡혔기 때문 일 것이다. 레싱의 소설은 그녀 스스로 페미니스트로 불리고 싶어 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여성, 소수자, 이주자 등을 주된 관심의 대상으로 다루고 있으며, <황금빛 노트북> 외에도 <폭력의 아이들>(1952), <소름집 <런던 스케치>(1992) 그리고 <다섯째 아이>(1988)까지 단지 '소재'로서가 아니라 여성의 삶과 심리, 구체적인 모습들을 포착해 낸다.

<다섯째 아이>는 익히 알려진 대로 행복하고 안정된 한 가정에 다섯째 아이가 태어나면서 무너지는 가족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폭로하는 작품이다. 대강의 줄거리는 이러하다. '정상'적인 한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자신들의 소망대로 넓은 집의 정원을 뛰어 다니는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중산층 가정을 '기획'한다. 부부의 소망대로 이루어지던 행복한 가정은 다섯째 아이 벤이 태어나면서 호트러지기 시작한다.

소설은 간결하고 급박한 문체로 진행되면서, 겉으로는 건조한 문체로 그려나 이들의 '불안한 안정'을 묘사해낸다. 레싱은 이 작품에서 가정에 대한 그들의 '순결

하고 아름다운' 태도를 고발하는데, 이 행복한 가정은 생계부양자인 남성 가장의 책임감과 아버지로서의 권위,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어머니 역할의 충실한 수행 등을 통해 유지된다. 레싱은 주인공들이 삶의 기쁨이자 기꺼운 의무로 여기려는 '노력'을 묘사하면서 '행복한 진짜 가족'의 유지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지 드러낸다. 소설은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친절할 만큼 이러한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으며, 그런 점에서 가족적 가치와 가족상에 대한 교과서이기도 하다.

소설이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갖고 있는 벤이 다른 아이들의 일상에 침범하고 안락한 일상을 해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것은 흥미롭다. '비정상' 이 (라고 낙인찍힌 것들)이 '정상' (이라고 여겨지는)의 범주를 위협하는 과정을 통해 주인공들이 '선한 의도'로 행하는 '모범적'인 삶이 보이는 사회적 규준에 충실한 태도를 지적한다. 실제로 벤이 '비정상'적인 것은 유순하고 부모를 잘 따르고 자기 자리를 잘 찾았던 4명의 아이들에 비해 너무 잘 먹고, 너무 크게 소리 내고, 울고, 거리의 아이들과 어울리기 때문이며, 이러한 모습이 그들의 가정을 위협한다.

주인공들이 비난하는 '일탈'과 그에 대한 레싱의 공격은 68세대들이 거부했던 기성세대의 삶의 방식과 '옛날

식 행복'으로의 회귀나 향수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전통적' 가족 가치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가족 제도와 그

에 기반한 삶의 방식, 친밀한 관계의 구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진다. 영화 <4인용 식탁>처럼 중산층 가정의 신화가 신도시의 공포로 변해버린 사회에서 '인간성 회복'과 '가족 가치'에 대한 강조로의 회귀가 아닌 방식의 친밀성과 관계 맺음에 대해 고민했던 것이 생각났다. 한국 사회에서도 가족의 다양한 형태들이 점차 더 가시화되고 있지만, 이를 단순한 가족 범주의 '확장'이나 '가족 가치'의 진정성을 남겨두는 방식이 아니라 같이 사는 것, 애정을 담은 관계, 친밀함을 맺는 방식 등에 대한 새로운 그림(그것은 가족이라는 이름일 수도, 다른 이름일 수도 있을 것이다)으로 질문의 방향을 옮겨보는 것이 어떨까. 근대적 이성애 가족 신화와 제한된 상상력을 뛰어넘어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해 고민 하는 것이 오히려 삶과 사람에 대한 진지하고 애정이 담긴 태도일 것이다.

* <다섯째 아이>(The Fifth Child)는 1988년 발표되었고, 한국에는 1999년 번역 출판되었다.

by_ 이갈

(여성주의자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현재진행형의 변화가 늘 저를 가슴 설레게 합니다)

에세이

성난 파도 이겨내기

모든 것이 새로웠던 신입생 시절. 응원 소리를 들으면 심장이 쿵쿵, 술 한 잔에 마음이 달뜨고 가슴이 열리던 시절이 있었지. 그 곳에는 곳곳에서 모여든 많은 친구들이 있었어. 모두들 맑은 눈망울과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있었어. 이제와서는, 그냥 나는 모르겠어.

나는 그 곳이 좋았어. 새로운 사람들이 있었고 무진장 떠들썩하고 활기로 가득 찼던 그 곳이 좋았어. 우리 반에는 멋진 사람들이 많았어. 제각기 굉장한 것들을 잔뜩 품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의 색깔을 뽐내기에 바빴어.

언제부터 나는 불편해지기 시작했을까. 무엇이 무서웠을까. 언제부터 나는 거대하고 씩씩한 사람들의 홍수에 파묻히지 않으려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을까. 그냥 나는 모르겠어. 내가 마냥 어리고 단단하지 않아서였을까. 아무래도 응원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해야 했겠지.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잘 들리고, 흥이 나니까. 응원 동작은 신나지만, 한 편으로는 거칠어, 불쑥 내 어깨 위로 올라오는 다른 사람들의 팔이 마냥 기분 좋지는 않아. 근데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술이 한 잔 두 잔 들어갔어. 내 얼굴은 달아오르고 하늘이 핑 도는데 저 아이들은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술을

참 잘 마시는 것 같아. 게임을 할 때마다 왜 자꾸 벌칙이 걸리는지... 이러다가 정신이라도 잃으면 어쩌지.

통금시간이 가까워오는 술자리는 가시방석이 있어. 언제 집에 간다고 일어서야 좋을까? 술자리에 오래 남아있는 사람이 아무래도 이야기도 많이 하며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겠지. 부럽다. 나는 집에 일찍 가야 하는데.

남자선배들이 여자 친구들 보고 반에 오래 남아 있으려. 여자 선배들은 개인주의적이고 학점 관리, 취업준비로 바빠서 안 나온다고, 우리는 그러지 말래. 반에는 정말 이타적인 사람만 남게 되는 모양이야.

우리 반에는 성폭력 문제 따위 없어. 자치규약은 인간관계를 뻥뻥하게 만드는 것 같아. 선배들, 남자 친구들 다 좋은 사람뿐인걸. 나는 그저 농담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 그저 너의 스스럼없는 스킨십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야.

예쁘거나, 혹은 털털하거나. 선배들을 '오빠'라고 부르거나, '형'이라고 부르기를 종종받거나. 예쁘지 않으면 유머감각이 있어야 했어. 스스로 망가져서라도 사람들을 웃기거나. 아니면 술을 잘 마시거나, 게임을 잘 하

거나.

또 새로운 일 년이 시작되었어. 또 술을 마시고, 또 누군가는 집에 일찍 가고, 누군가는 그 곳에 남게 돼.

그 곳에는 분명 잘 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 나도 알아. 나는 그저 두려웠을 뿐이야. 나를 덮쳐오는 파도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때의 느낌이 아직도 이렇게 생생한데. 나도 알아. 내가 울고 있을 때도, 분명 그 곳에서 잘 해 나가는 친구들이 있었어. 하지만 잘 해 나갈 수 없는 사람도 분명 있는 거야. 정말이야. 절대로 적지 않은 친구들이 그 곳을 이미 떠났는걸. 나는 학점에 목 매지도 않았고, 이기적인 사람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저 그곳에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는 걸, 숨을 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누구라도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잘 지내고 있어. 내 숨통이 트이게 해 준 사람들과, 저 파도를 압도하는 힘을 기르고 있어. 나는 어서 무력무력 자랄 거야. 숨 쉴 곳을 찾아온 나와 같은 친구들을 보듬어 안아주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마디.

아직 반에 남아있는 내 친구들, 정말정말 상처받지 않고 잘 정착하길 바래. 기도할게.

by_ Remi

